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성경: 여호수아 15장 13-19절

Tag: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15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웃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 집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수15:13-19)

오늘 말씀에는 세사람이 등장한다. 갈렙, 웃니엘, 악사.  
 악사는 갈렙의 딸이고, 웃니엘은 악사의 남편이 되었다.  
 웃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는데, 갈렙은 웃니엘의 삼촌이다.

갈렙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약 40세 무렵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특히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 헤브론을 정탐한 사람이다.

그는 그때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었다. 그들은 무척 힘이 세 보였지만, 갈뿔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였고 그에 대한 신앙심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함께 정탐을 갔던 동료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핑크빛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인생이 핑크빛이었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의 십자가가 있다. 다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소유하고 있으며, 대신 나 또한 다른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를 그렇게 원했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과분하게 비싸고, 세금, 보험료, 옵션에 대한 아쉬움, 휘발유 값에 대한 부담, 주차장에 대한 부담 등이 생긴다.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가능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

공주의 삶이 그토록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공주는 다른 공주들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공주이기 때문에 받는 부담감이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그곳에 거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주인이 되는 순간, 온갖 잡족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과 용기와 지혜와 통치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의무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전쟁부터 승리해야 한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되었다.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 인생이란 기본적으로 전쟁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행복을 차지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 근래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전쟁이 국가간의 전쟁만 잘 치르면 되는 세상이 되었고, 비교적 신사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며 국제 분쟁에 개입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온갖 위협을 드러내 놓고 행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목숨을 건 처절한 권력 유지에 대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처럼 각 시대마다 전쟁의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전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다.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삿3:1-2)

인생은 악하며, 비루한 자들은 항상 존재하며,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은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군사력의 보호 아래 경찰력이 존재하며, 검사와 판사를 이용해서 비루한 자들을 다스리며, 정적을 제거하는데 여론을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력이란 전쟁용이 아니라, 전쟁 예방용이 되지 오래다.

크기나 대상만 다를 뿐 인생의 모든 것이 전쟁의 축소판이며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와 행복이 돌아가고, 모든 전쟁에서 누가 얼마

만큼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전쟁터에 몰아 넣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흔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는 생각만 한다. 그러나 그 낙원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 유지된다. 전쟁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전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갈렙은 이 전쟁을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예비한 사람이다. 그는 40년 동안 거인족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결국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80을 훨씬 넘긴 상황이었으므로 젊은 용사가 필요하였다. 왜냐면 헤브론 서쪽에 비옥한 땅 기랏 세벨(세나)이 있었고 그곳까지 점령해야 비로소 헤브론의 안전이 보장되겠기 때문이었다.

갈렙은 피를 내어 용맹한 딸 악사를 이용하였다. 아마 악사가 사나이들 사이에 인기가 피 있었던 것 같다. 누구든 기랏 세벨을 점령한 자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악사의 사촌오빠 웃니엘이 담대히 나서서 기랏 세벨을 취하고 악사와 결혼하였다.

악사 또한 기랏 세벨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다음, 이 성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하였다. 당시에 샘물은 재산목록 1호에 해당하는 1급 자산이었다. 아버지 또한 딸이 왜 샘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갈렙은 흔쾌히 샘물을 두 개나 딸에게 주었다.

이 전쟁의 명성 때문에 웃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었다.

자신만의 전쟁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찬양예배>

제목 : 은사집회란 무엇인가?

성경: 에베소서 4장7-12절

Tag: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4:7-12)

7. 각 사람에게 선물(doma; 은사 恩賜(은혜은, 줄사);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임금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Xaris)를 주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의 분량은 각각 다름.(수 많은 선한 의도가 있으심.) 분량이 각각 다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임.

10.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의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 교회는 이 충만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1. 그리스도의 5중직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교회를 세우며 유지하는 자

-선지자는 예언적 기능을 감당하는 자

- 복음을 전하는 자;전도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
- 목사;목양을 하는 자; 부장의 기능도 포함됨.
- 교사;신학을 연구하는 자.

오늘 은사집회는 예언집회

- 예언이란? 인생에 창조성을 불어 넣는 자.
- 예언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대언자.
-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성이 깃들어 있음.
- 각 사람에게(성도에게)도 창조성은 있음. 그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 각자의 삶에서 창조적 필요가 도출됨. (마귀가 방해하지 않을수록 창조성이 뛰어남.)
-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다면 또는 체험이 있다면 그 니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지혜로운 니드가 됨.
- 예언자가 이 니드를 읽어내는 자이기도 함.
- 예언자를 통한 창조적 선언을 하게 됨. 이 선언이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씨앗이 되기도 함.
- 사람마다 이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울 수 있다. 싹이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언을 통한 싹은 경건한 삶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는 그 싹을 키워 결국 열매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이다.
- 예언을 립서비스가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이 유익하리요.